

2026년 주님의교회 표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1

-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_디모데전서 4:5
-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4:17-18

오늘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13-14

02 |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

세상이 속도와 경쟁을 말할 때, 교회는 멈추어 함께 손을 내미는 공동체입니다. 넘어지는 이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가는 삶이 곧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임을 다시 새기게 합니다.

03 | 2026 신년특별새벽기도회

특별새벽기도회는 '은혜 아래 살고 싶다'는 고백과 실제 삶 사이의 간극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했습니다. 여섯 날의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고 선택하며 결단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04 | 하나님의 선교 헌금, 2025 결산과 2026 계획

주님의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후원이 아닌 동참과 동반의 사명으로 감당해 왔습니다. 4면에서는 2025년의 열매와 함께, 2026년 더 넓어질 선교의 지평을 소개합니다.

05 | 가정사역원 사역 안내

가정사역원은 삶의 모든 단계에서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워지도록 돕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면은 가정이 예배자이자 선교의 주체로 서도록 초대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06 | 도서부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

도서부 독후감 공모전 수상작은 책을 통해 신앙과 삶, 역사 앞에 선 성도들의 깊은 사유를 전합니다. 읽고 생각한 말씀이 각자의 삶을 어떻게 다시 세우는지 보여 줍니다.

08 | 어와나 사역 소개

어와나는 말씀 암송과 공동체 훈련을 통해 다음세대가 복음 위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도록 돕는 제자훈련 사역입니다. 토요일마다 이어지는 이 사역 속에서 아이들은 즐겁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웁니다. 또한 9면에서는 어와나 스팅스와 티앤티 단원들이 참여했던 수도권 성경퀴즈대회의 수상소식을 전합니다.

09 | 『생명사랑 이웃사랑』 성탄 캠페인

성탄절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은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나눔은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곳곳에 복음의 온기를 전했습니다.

10 | 부임인사

새로 부임한 교역자들의 인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동행을 소개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명과 다짐을 함께 기도로 맞이하는 지면입니다.

10 | 2026 상반기 함글함글

2026년 상반기 「함글함글」은 예배와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함께 기록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신문입니다. 완성된 이야기보다 진행 중인 사역과 작은 고백까지 담아내며, 교역자와 성도 모두의 참여로 주님의교회가 걸어온 길을 기록해 갑니다.

11 | 십자말풀이

이번 호에는 가족이 함께 말씀을 읽으며 참여할 수 있는 성경 십자말풀이 '골로새서 편'을 담았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바울의 편지를 따라 말씀을 찾아 풀어가며, 가정 안에서 성경을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2026 교회표어
신년주일설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

세상은 빠르게 가는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넘어지는 사람은 경쟁에서 뒤쳐진 존재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넘어지는 이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멈추고, 함께 다시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노진준 목사님이 쓰신 책 「기도를 의심하다」에 소개된 이야기처럼, 장애인 올림픽 경기에서 출발 직후 넘어진 한 선수를 향해 나머지 일곱 명의 선수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와 손을 내밀어 함께 결승선을 향해 뛰었던 장면은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은 1등이 아니라 ‘함께 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가정이 교회이고, 교회가 가정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정한 주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입니다. 이는 단지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구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밝히는 고백입니다.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는 ‘나 자신’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최소 단위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먼저 실현되는 삶의 자리이며, 동시에 작은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 공동체인 주님의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처럼 가정과 교회는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며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이가 있다면 멈춰서서 함께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의와 평강과 희락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을 통해 초대교회 안의 실제적인 갈등을 다룹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의 차이, 음식 문제와 같은 사소한 보이지만 공동체를 흔들 수 있는 문제들 속에서 바울은 17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_ 로마서 14:17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 가지 가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의롭다’는 것을 도덕적 기준이나 개인적인 옳고 그름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채 내가 옳다고 믿어온 의는, 어쩌면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워집니다.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아래서 형성됩니다.

평강: 폭풍 속에서도 누리는 은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환경이 주는 안정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질 때 주어지는 내면의 평안입니다. 삶의 절벽 앞에서 폭풍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주어지며, 우리의 심령을 깊게 하고 삶을 단단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평강을 살아냅니다.

희락: 관계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

하나님 나라의 삶은 결국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이 기쁨은 소유나 형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흘러나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이웃과 나누며 살아가는 한 집사님의 삶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쁨은 나눌수록 깊어집니다.

바울은 의와 평강 다음에 희락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그분 안에서 평강을 누릴 때, 기쁨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맺힙니다.

함께 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에는 칭찬을 받는 공동체로 함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넘어지는 이를 외면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함께 가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함글함글



2026.1.4.
주일설교 한 절 묵상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은
성령의 도우심으로부터 출발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구원자 예수님을 신뢰할 때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에서도 이웃과 기쁨을 나누는 희락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 / 로마서 14:17-18



2026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은혜, 은혜로다

은혜 아래 걷는 길

새해 첫 주간,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한 2026년 특별새벽기도회(이하 '특새')는 인도자 목사님들의 위트와 재치가 더해져 여섯 날 동안 "내일 새벽에도 다시 오고 싶다"는 기대를 품게 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깨우며 다음 날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각자의 삶의 무게를 안고 모였지만 우리를 그 자리에 서게 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올해는 은혜 아래 살고 싶다"는 공통된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새가 시작되자 곧 깨닫게 됩니다. 은혜 아래 살고 싶다는 소망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소망과 실제의 삶은 가끔은 따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번 특새는 그 간극을 외면하지 않고, 은혜가 현실이 되는 길을 차분히 안내해 준 시간들이었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그 마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현실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멀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특새의 자리에 있을 때는 분명 마음이 뜨거운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년특새의 여정은 더욱 정직하게 다가왔습니다. "은혜 아래 살고 싶다"는 고백이 어떻게 삶의 결이 될 수 있는지를 끝까지 묻고 또 묻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이 간극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를 설명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은혜가 삶이 되는 길을 차근차근 보여줍니다. 은혜는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억되고, 해석되고, 선택되고, 결단될 때 비로소 삶의 실체가 됩니다. 이번 특새의 여섯 날은 바로 그 과정을 하루씩 따라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1일차, 은혜의 '힘' 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씀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고난과 환난, 궁핍과 슬픔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그 모든 자리에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은혜는 문제를 없애 주는 마술이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붙드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말씀은 은혜를 미래로 미루지 말고, 오늘의 삶으로 끌어당기라는 초대였습니다.

2일차, 선택 받은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선택의 은혜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억은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못하게 했고, 삶을 함부로 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선택의 은혜를 잊을 때 신앙은 습관이 되고, 기억할 때 비로소 열매 맺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배웠습니다.

3일차, '내가 나 된 것' 이 은혜임을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도, 현재의 수고도, 지금 서 있는 자리까지도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은 비교를 멈추게 했고, 자랑 대신 감사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됨을 배웠습니다.

4일차, 은혜 입은 자의 태도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자의 삶의 태도를 살폈습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고백,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네"로 응답하는 삶이 은혜의 열매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은혜는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은 말과 관계, 태도 속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마주했습니다.

5일차, 은혜는 통로가 될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도록 주어졌음을 배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은혜의 근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로 이해했습니다. 가정과 일터, 관계의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다"라는 의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6일차, 은혜 아래 결단하는 사람으로 서라는 부르심에 인도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는 가장 분명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은혜는 변하지 않지만, 은혜 아래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시 선택의 자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죄를 끊어내려 애쓰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과 은혜로 마음을 채우고, 옛 주인이 아니라 새 주인을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삶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달라진다는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여섯 날 동안의 특새는 우리에게 새로운 결심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우리 삶 곳곳에 뿌려져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했습니다. 우리를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로, 그리고 은혜 아래 살아내는 자리로 차분히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여섯 날의 고백이 한 주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는 특별한 날에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뜰 때마다 발견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특새는 끝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은 있고,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은혜는 멀리 있지 않고, 이미 우리의 삶 곳곳에 뿌려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만 뜨면 오늘도, 내일도 은혜 아래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옛 주인을 따를 것인지, 새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2026년, 우리 공동체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며, 은혜 아래 결단하고,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상이 "정말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으로 가득 차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기를 바라며, 이 글을 읽는 우리 모두가 같은 소망으로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 고백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2026년을 은혜 아래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보냄과 협력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교

주님의교회는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라는 분명한 신학적 방향 아래, 선교 헌금을 단순한 후원이 아닌 사역의 동반과 참여로 이해하며 선교사와 사역 현장을 지원해 오고 있다. 교회는 필요 중심, 사역 중심의 기준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선교사와 프로젝트를 선별하여, 보냄(파송)과 협력이라는 두 축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2025년, 현장에 응답한 선교 헌금의 사용

2025년 하나님의 선교 헌금은 교육, 돌봄, 자립, 의료, 에너지,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었다.

파송 선교사 영역에서는 코피노 가정의 회복과 자립을 돕는 통합 사역, 방과 후 센터 운영, 현지 공동체 사역 등 사람을 세우는 지속적 사역에 집중하였다. 또한 에듀가든, 치과 유니트 체어 교체, 교회 카페 설비 지원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의 실질적 필요에 응답했다.

협력 사역으로는 방문 호스피스,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한국어 러닝센터 운영 등 교회가 직접 파송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선교에 부합하는 사역들과의 연대를 이어갔다.

2025년의 지원은 단기적 성과를 넘어, 사역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2025 하나님의 선교 헌금 지원

선교사	프로젝트 명
윤동주	상근직 교사 지원(25.1.1~12.31.) BC운영 사회기금 조성 협력(25.1월, 6월)
이요셉	양떼 공동체(25.1. ~ 계속)
유성훈	코피노 가정 회복과 자립을 위한 통합 사역(25.3. ~ 계속)
윤바나바	방과 후 센터 운영(25.7.1 ~ 12.31.)
금상호	2차 성미나눔(25.1.1 ~ 3.31.) 태양광 발전 등 및 장화 보급(25.1.1. ~ 6.30.)
정수아	교회 카페용 커피머신 설비 구입(25.1. ~ 계속)
최화평	에듀가든(25.1.1 ~ 6.30.)
변춘석	치과 유니트 체어 교체(25.1.1 ~ 6.30.)
이민음	방문 호스피스(25. 계속)
이인로	LHCA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25.1.1. ~ 3.31.)
송지형	한국어 러닝센터(25.4.1. ~ 계속)

2026년, 더 넓어지는 선교의 지평

2026년 하나님의 선교 헌금 지원 계획은 2025년의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청소년과 다음세대, 지역 공동체, 통전적 선교로 그 영역을 확장한다.

파송 선교 영역에서는 청소년 여름 캠프와 방학 특강, 주일학교 교육 사역, 인디오 지역 사역을 위한 이동 수단 지원 등 다음세대와 현장 밀착형 사역이 눈에 띈다. 또한 오지 지역에서의 의료, 교육, 돌봄을 아우르는 통전적 선교 사역도 계획되어 있다.

협력 사역으로는 현지 성도와 사역자 가정에 대한 정기 후원, 방문 호스피스와 원격 상담 사역, 마을 도서관 러닝센터 설립 등 지속 가능한 선교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2026 하나님의 선교 헌금 지원(안)

선교사	프로젝트 명
윤동주	상근직 교사 지원
이요셉	미혼모 지원센터 임대료 지원
유바디	연구사업 지원
유성훈	코피노 가정 회복과 자립을 위한 통합 사역
아린	주일학교 교육 사역-칸선교회를 중심으로
윤바나바	방학기간 청소년 여름 캠프 및 방학특강
금상호	인디오 지역 사역을 위한 4륜 구동 트럭 구입
한사람	오쉬 지역 통전적 선교와 섬김 (틀니 봉사 사역, 마을 학교 도서 기증 등)
최화평	북부지역 교회 청소년 성경 공부 교재 출판 및 보급
오바다	현지 성도 및 사역자 가정 정기 후원 프로젝트
이민음	방문 호스피스 사역 및 원격 상담 사역
송지형	끼나위 ZONE6 마을 '도서관 러닝센터' 설립 사역

헌금이 사명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선교 헌금은 교회의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공동체의 고백이다. 주님의교회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고민하며, 선교 현장과 함께 호흡하는 교회로 나아가고자 한다.

2025년의 순종 위에 2026년의 새로운 걸음을 더하며, 주님의교회는 오늘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함글함글



가정사역원
2026 사역 소개

신앙의 주체인 가정을 세우는 가정사역원

주님의교회 가정사역원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정'이라는 교회 주제 아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삶으로 살아내도록 돕습니다. 가정이 신앙의 주체로 서서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믿음의 온전히 전수되도록 교육하고 양육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인 가정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가정사역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_ 김은선 목사

해피맘스쿨

해피맘스쿨은 생명을 기다리는 예비 엄마(임산부)를 위한 모임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 가운데 '행복한 엄마'로 세워지고, 다양한 태교 활동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 '행복한 마음'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4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8주 동안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온라인(Zoom)으로 진행됩니다.



아름다운 부모학교

아름다운 부모학교는 부모들이 기독 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 바라보며, 그의 신앙과 성품, 학업과 은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눈을 열게 됩니다. 3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09:30~11:30,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4월 4일과 5월 2일에는 휴강합니다.



온세대 새벽기도회

온세대 새벽기도회는 주님의교회 안의 모든 세대가 함께 새벽기도에 참여하여 다음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회 후에는 온세대가 참여하는 게임 등 다양한 세대간 소통이 1층 로비에서 이루어 집니다. 예배 전후로는 온세대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쉼안한물가 장소가 준비됩니다. 3월 14일, 5월 9일, 6월 13일 토요일 새벽 5시 20분에 대예배실에서 예배합니다.



마더와이즈

마더와이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성경적 여성성'이라는 고귀한 부르심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돕는 말씀 중심 프로그램입니다. 지혜, 회복, 자유, 동행의 네 가지 주제로 구성된 전체 4학기 과정 가운데, 이번 학기에는 자유편을 진행합니다. 주님의교회 여성 성도 선착순 30명을 모집하며, 3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 9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초등부실에서 모입니다.



꿈꾸는 3막

꿈꾸는 3막은 노년 세대를 위한 노년기 신앙 교육 프로그램으로, 영성·비전·지성·건강·관계·영향력의 여섯 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꿈꾸는 3막 4기는 '영성'을 주제로 1년간 진행되며, 새롭게 꿈꾸며 사명을 발견하는 깊은 영성의 시간을 기대합니다. 3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8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초등부실에서 열립니다.



파더와이즈

파더와이즈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삶의 다양한 관계를 성숙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주님의 위로와 자유케 하심을 경험하도록 돕는 아버지(예비 아버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하반기에 진행합니다.



결혼예비학교

결혼예비학교는 예비부부와 신혼부부가 함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의 본을 배우고, 신혼의 일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가정의 기초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하반기에 진행합니다.



가정예배학교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부모의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가정예배를 실제 삶 속에서 세워가도록 함께 훈련합니다. 하반기에 진행합니다.



도서부

독후감 공모전 고등부 우수작

내게 있는 것

나는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좋아한다. 초등학교 때 이재철 목사님이 교회에 직접 오셔서 해주신 사랑과 인생에 대한 설교는 내 18년 인생에서 꼽히는 인상 깊은 설교 중 하나였다. 이 책을 봤을 때 이재철 목사님의 책이라고 해서 끌린 점도 있긴 하지만 제목이 인상적이었다. ‘내게 있는 것’이라는 책 제목을 봤을 때 나는 원망의 감정부터 느꼈다. 대한민국 학생인 나로서 내게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타고난 재능이나 뛰어난 학습능력은 나에게 없는 것 같았다. ‘왜 제게 주신 것은 하나도 없나요? 도대체 제가 지금 이 성적을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외치고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서는 책의 표지에서부터 말씀해주셨다. ‘...그대는 지금부터 신앙의 내면화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그대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대에게 있는 것-사랑으로 마주해야 할 자를 향해 그대의 관심이 흘러가야 한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보자. 어떻게 하면 신앙의 내면화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주님께 관심을 쏟고 사랑할 수 있을까? 베드로가 앓은병이 걸인을 일으킨 사도행전의 일화는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앓은병이를 어떤 말로 일으켜 세웠는지를 아는 사람은 흔치 않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말한 내게 있는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베드로 속에 임해 계신 것이다. 사도 바울 역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안에 계심을 알고 있었던 믿음의 고백이었다. 신앙의 내면화의 핵심은 영으로 각자의 심령 속에 이미 임해 계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는 이미 임해 계시는 주님에 대해 깨어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내면화의 삶이다. 이때 나는 ‘이미’라는 부사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내가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깨달아야 주님께서 내 속에 거하시는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었다.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능동적인 존재로 우리 삶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주신 것이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이 내게 찾아와 주시지 않는다고 원망했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문밖에 서 계셨고 내가 그 문을 닫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결론이 났다. 예수님이 내 안에 이미 계시고 이제 어떻게 임해 계신 주님에 대해 깨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틀을 정비해야 한다. 신앙의 내면화와 외향화의 교직 속에서 살던 베드로의 믿음의 틀을 먼저 살펴보자. 베드로는 자신의 위기 앞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사도로서 그의 모습을 보면 죽을 위기에 많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연한 모습을 가진 것이다. 이것은 곧 베드로의 믿음의 틀 안에 베드로의 작은 틀이 마치 액자소설처럼 끼워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것, 믿음의 틀이 커져 간다는 것은 그동안 텅없이 과장되어 있던 자기 자신의 틀을 축소함과 아울러, 내 속에 가두고 있던 하나님의 틀을 본래의 크기로 확장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이제 바른 틀

안에선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핵심만 말하면 의의 병기, 성령, 기도, 고난이다. 의의 병기는 로마서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한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한다. 이 말씀을 보며 앞서 말한 네 가지 키워드간의 관계를 생각해보다가 에베소서 말씀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생각났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성령의 검을 떠올려 보자. 성령님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며 절제의 열매를 주신다. 그것의 길잡이가 곧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가끔씩 지치고 힘들 때 혹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틀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다음으로 기도의 부분이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즉, 기도는 우리가 깨어 있기를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도는 주님에 대해 깨어 사는 것을 도와주는 전제조건이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형태의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불안과 걱정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침몰해버린다.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은 더 어려워진다.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욕의 이야기를 보자. 욕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욕은 말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욕에게 주신 고난이 자신을 골리거나 해치려는 뜻이 아님을 욕은 알고 있었다.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정금처럼 단련시키는 과정임을 믿었다. 하나님의 틀 속에 품긴 자신의 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그 형태와 내용이 무엇이든 자신의 유익을 위함임을 욕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바른 믿음의 큰 틀 속에서 고난을 발판으로 삼아 위대한 신앙의 표상이 되었다.

지금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틀 안에서 그분의 계획 안에 있고 그분께 속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꾸 내 틀을 확장시키려고만 했다. 내게 주시지 않는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고 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을 방해자, 간섭자라고만 생각했다. 그 모든 것의 문제는 내가 내 틀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 하나님의 틀 안에, 그분의 섭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 불안함과 근심 걱정이 들 때도 나는 믿을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와 의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정세은 학생 / 고등부



도서부
독후감 공모전 일반부 우수작

백범일지

『백범일지』는 단순한 독립운동가의 기록이 아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해 갔는지에 대해 보여주는 살아 있는 삶의 궤적이다.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 시절에 상하이에서 이 책을 처음 집필하기 시작했고, 해방 후에 귀국하여 다시 보완해서 완성했다. 국권을 잃은 후에 나라가 사라진 시대에 쫓기는 망명지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었던 그가 스스로를 ‘백범’, 즉 평범한 백성이라고 부르며 남기기 시작한 이 글은, 민족의 영웅담이기보다는 인간 김구의 고뇌 및 성찰이 담겨져 있는 자서전이다. 돌베개에서 출간된 도진순의 역주본은 이런 글의 흐름과 역사적인 맥락에 대해 한층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으로, 나는 백범이 겪은 사건에 대해 보다 정확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읽을 수 있었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 김구에 대해 독립운동의 상징적인 인물로만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목소리로 서술된 이 기록이 내가 알고 있던 위인 김구의 이미지를 완전하게 벗겨내고, 깊은 인간성 및 뜨거운 고뇌를 지니고 있는 사람 김구를 만나볼 수 있게 했다.

김구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에서 느낀 것은 그가 일찍부터 민족 의식과 정의감을 가지게 된 배경이었다. 그는 지역의 천대와 가난, 그리고 나라 잃은 현실 속에서도 부당함을 참지 못하는 성격을 보여주었다. 특히 관아의 부정이나 횡포에 맞서 싸우던 일과 억울한 누명을 쓴 채 감옥에 갇혀서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그가 자신의 신념을 어떻게 형성해 갔는지에 대해 잘 보여준다. 그가 자신의 나라를 짓밟은 일본인을 처단한 일을 두고 느낀 복합적인 감정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일본인을 미워했으나,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 앞에서 고뇌와 죄책감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 독립운동가의 삶이 마냥 의롭고 영웅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점과 그 선택에는 뼈를 깎는 고민과 인간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한 점이 마음 깊이 와닿았다. 이후에 김구는 안중근 의사와 만나게 된 것에 대해 특별한 인연으로 회상한다. 김구는 안중근의 단정한 품성뿐만 아니라 놀랄 만한 결단력, 그리고 나라를 위한 신념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하지만 둘의 만남은 길지 않았고, 김구는 안중근을 평생 잊지 못했다. 조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결의와 행동력, 그리고 의를 생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태도는 뒤에 김구가 임시정부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중요한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등불 같은 존재였으며, 민족의 운명을 짊어진 지도자가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로에게 보여준 셈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김구는 단순한 지도자가 아닌 도덕적 중심이자 정신적 버팀목이었다. 그의 리더십은 매우 독특한 면이 있다. 조직을 강력한 권위나 명령 체계를 통해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고, 큰 뜻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가치관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다. 동지의 의견을 경청하고, 설득하며, 도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을 이끌어 나갔다. 어떤 때는 타협을 하지 않는 완고함처럼 보였지만, 이는 권력을 탐하는 완고함이 아닌 민족의 자존심과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지켜내기 위한 고집에 가까웠다. 임시정부가 내부 갈등 및 자금난으로 흔들릴 때도 김구는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조직을 떠나지 않았으며, 자신의 집까지 팔아서 활동비를 마련하는 등의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김구의 모습 중에서 내가 가장 크게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다. 김구는 단순히 강인하고 담대한 영웅으로만 그려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에 매우 솔직했다. 동지가 죽을 때는 울고, 조국이 멀어질수록 절망하며, 가족을 지키지 못하였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탓한다. 특히 상하이에서의 망명 생활 동안 느꼈던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던 죽음에 대한 공포는 그를 영웅이 아닌, 본인과 똑같이

고민하고 흔들리는 한 인간으로 보이게 했다. 이러한 솔직함은 오히려 그가 큰 지도자이자 위대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큰 신념을 지키는 사람일수록 고독하고 힘든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되었다.

그가 마지막에 기록하였던 나의 소원은 김구의 가치관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었다.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깊은 울림을 느꼈다. 그는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강대국이나 부유한 나라가 되길 바란 것이 아닌, 가장 문화가 있으며, 가장 인도주의적이고, 가장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꿈꾸었다. 그가 강조한 것은 물질적인 번영이 아닌 사람의 품격과 평화의 가치였다. 특히 다른 나라를 힘으로 억압하는 강대국이 아닌, 약소국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존엄과 문화적인 정신선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는 그의 염원은 우리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경제적으로 성장하였으나, 갈등과 분열, 경쟁과 혐오가 일상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사회의 분위기 속에서 김구의 사람의 행복, 인도주의의 가치, 문화의 힘이라는 메시지는 매우 큰 울림을 주고 있다. 그는 독립운동을 했지만 누군가는 죽이는 일이 아닌 누군가를 살리는 나라를 만들고자 했다. 분단된 조국이 서로를 적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범이 꿈꾸었던 나라는 남과 북이 서로 화해하고, 폭력이 아닌 협력과 이해를 통해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나라였다. 지금도 여전히 분단 및 대립이 지속되는 현실 속에서, 그의 정신에 대해 다시 떠올릴 때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목표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나는 『백범일지』를 읽으면서 나의 독립이라는 거대한 명제를 넘어서, 한 개인이 자신의 삶을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던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김구의 삶은 화려한 영웅담도 아닌 끊임없는 선택과 실수, 그리고 고통과 책임의 연속이었다. 나는 그의 삶을 보면서 이 책을 읽기 전에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묻게 되었는데 바로 “나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이다. 김구의 리더십을 보면서, 진정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생각 또한 바뀌었다. 오늘날에 지도자로 불리는 사람들 중에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고, 대중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언어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김구는 시대가 원했던 것을 덕으로 이끄는 지도자였다. 그는 말보다는 행동을 앞세웠고, 이익보다는 가치를 택했다. 나 또한 삶에서 작은 책임을 맡게 될 때마다 그의 태도를 떠올리고, 보다 옳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 이는 완벽한 사람이 되지는 것이 아닌, 적어도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이다.

『백범일지』를 읽고 난 뒤에 나는 단순히 독립운동가의 한 부분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아닌, 한 인간의 진실한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김구의 삶은 매우 거창해 보이지만, 그 출발점은 작은 부끄러움조차도 참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큰 역사는 결국 작은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당함을 마주하였을 때 침묵하지 않으며, 옳다고 믿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며, 공동체를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작은 것부터 실천해보려고 한다. 김구가 남긴 삶의 기록은 과거의 역사가 아닌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있는 질문이며 등불이라고 생각한다.

김수진 청년 / 너나들이부

어와나
사역소개

말씀 속으로 뛰어드는 여정: 커비스부터 저니까지

어와나(Awana)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이라는 뜻으로, 딤후 2:15 말씀에서 이름을 따온 복음 중심의 어린이와 청소년 제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전 세계 120여 개국, 수많은 교회에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복음을 배우고 삶 속에서 믿음을 세우도록 돕는 사역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주님의교회는 2004년부터 어와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와나 사역의 핵심 원리

어와나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활동이 아니라, 말씀 암송, 성경적 가치관 형성, 놀이·게임, 소그룹 활동 등을 통해 아이들이 기쁘고 재미있게 참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와나 사역의 핵심 원리는 복음 중심(Gospel-centered), 성경 암송(Bible Verses), 재미있고 흥미진진(Fun & Exciting), 예수님을 섬기는 삶으로 훈련(Training to Serve Jesus), 견고한 리더십 개발(Leadership Development)입니다.

주님의교회 어와나 클럽 - 커비스부터 저니까지

주님의교회는 토요일마다 어와나 클럽을 운영하며, 연령별로 체계적인 말씀훈련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클럽은 연령/학년별 성장단계에 따라 성경을 배우고 적용하도록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커비스 (Cubbies)는 미취학 유아로 5~6세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 예수님, 성경에 대한 기초 진리와 사랑을 놀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배우는 단계로 기본적인 믿음의 기초 세우기와 말씀의 즐거움 경험을 핵심 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스팍스 (Sparks)는 7세부터 초등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활동 시간에는 성경 속 이야기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치관을 게임, 활동, 소그룹 시간에 배웁니다. 이 시기는 성경 인물과 이야기 중심의 즐거운 학습으로 성경적 세계관 기초 형성하는 시기입니다.

티앤티 (T&T - Truth & Training)는 초등 3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구속사, 성경의 구조 등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으로, 성경 중심의 사고력·태도 훈련을 통해 믿음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배웁니다.



트렉 (Trek)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중학생들에게 맞는 성경 중심 성경읽기, 토론, 암송을 통해 “나의 신앙”을 스스로 소유하게 도와주는 여정으로, 삶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우는 훈련과 질문을 함께 나누는 성경 여정입니다.

저니 (Journey)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경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세우는 관점을 형성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고민하고 실제로 적용해보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과 삶을 바라보며 제자된 삶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어와나의 활동 방식 & 교재 구성

(핸드북 중심 소그룹) 각 연령별로 마련된 핸드북을 통해 가정에서 암송해 온 성경 구절을 확인받고, 이야기 요약, 적용 질문 등을 풀어가는 학습을 합니다. 매주 조금씩 단계를 완성해 나가며, 암송과 활동 성취에 따라 암송 패치나 보석, 핀, 상장과 상패 등을 받습니다.

(게임 및 활동 시간) 활동적인 놀이와 협동 게임을 통해 성경 이야기와 암송을 즐겁게 경험하며, 팀워크와 성경적 가치관을 몸으로 익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즐겨워하는 시간입니다.

(대그룹활동) 모든 단원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공동체로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소그룹과 게임 시간이 개인의 참여와 관계에 초점을 둔다면, 대그룹활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공동체 전체가 서는 예배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와나 특별활동 - 어와나 올림픽 & 성경퀴즈대회

어와나 사역에는 매주 진행되는 정규 모임 외에도, 아이들이 말씀을 더 깊이 경험하고 공동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특별 활동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활동이 바로 어와나 올림픽과 성경퀴즈대회입니다. 이 두 활동은 서로 다른 방식이지만, 공통적으로 말씀을 즐겁게 반복하고 공동체 안에서 신앙을 체화하도록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와나 올림픽) 어와나 올림픽은 어와나의 공식 게임을 다른 팀(교회)과 겨루는 행사입니다. 단순한 운동회가 아니라, 어와나가 중요하게 여기는 규칙, 존중, 팀워크, 정직함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성경퀴즈대회) 성경퀴즈대회는 어와나 핸드북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말씀 이해 및 암송 점검을 겸한 특별활동입니다. 단순한 지식 평가가 아니라, 그동안 배운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말씀이 머릿속에만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도록 돕는 시간입니다.



클럽명	대상	시간	장소
커비스	5~6세	(토) 9:50	1층 싹트네실
스팍스	7~9세	(토) 9:30	3층 소년부실
티앤티	10~13세	(토) 9:30	신축체육관
트렉	14~16세	(토) 9:30	3층 초등부실
저니	17~19세		

어와나가 주는 의미

어와나는 단순한 성경공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며, 삶 가운데 적용하고 서로 돕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돕습니다. 토요일에 이루어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는 믿음의 여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와나

2025-2026 수도권 1차
성경퀴즈대회

말씀으로 자란 다음세대, 어와나 성경퀴즈대회

주님의교회 어와나 스팅스와 티앤티가 지난 1월 10일(토), 금란교회에서 진행된 어와나 수도권 1차 성경퀴즈대회에 참여하여 값진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스팅스와 티앤티 단원들이 말씀 암송과 이해를 바탕으로 성실히 준비한 결과, 각 과정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스팡스에서는 스카이스토머(9세 과정)에서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4명, 윈러너(8세 과정)에서 금상 1명, 은상 6명, 동상 2명이 수상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말씀을 즐겁게 배우고 암송해 온 어린 단원들의 꾸준한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진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티앤티는 총 10명의 단원이 출전하여 금상 5명, 은상 2명, 동상 3

명을 수상하며,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 속에서 적용하려는 다음세대의 믿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성경퀴즈대회는 단순한 경쟁의 자리를 넘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회를 위해 수고한 단원들과 교사들, 그리고 기도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의교회 어와나 사역을 통해 다음세대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함줄함줄

(사)섬김과나눔
2025 생명사랑 이웃사랑

성탄 캠페인으로 전한 하나님의 사랑

2025년 성탄절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 결과

(사)섬김과나눔은 2025년 12월 14일부터 25일까지, 성탄절을 맞아 2주간 『생명사랑 이웃사랑』 캠페인을 진행하며 후원금 모금 행사와 후원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와 헌신 속에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으며, 모아진 후원금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교회 성도들의 성탄절 헌금 9,000만 원과 법인이 별도로 모금한 캠페인 후원금 약 2,700만 원 등이 이웃돕기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사)섬김과나눔의 이웃사랑 실천 사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차상위계층 등 이웃돕기 지원

차상위계층 및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한 직접 지원 사업을 통해 총 127명에게 5,9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교구 추천 27명, 장애인사역부 37명, 청년부 2명, 너나들이 15명, 섬김과나눔 추천 7명, 국내선교(농어촌선교) 23개 교회, 사회복지시설 16개소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희망상자 제작 지원 (기아대책 협력)

기아대책과 협력하여 진행된 희망상자 지원 사업을 통해 총 500개의 희망상자(2,500만 원 상당)가 전달되었습니다.

거여·마천 지역 독거어르신 156개를 비롯해 송파교육복지센터 50개, 광야의교회 13개, 우리들학교 25개, 사회복지시설 44개, 한빛청소년

재단 20개, 서광장로교회 11개, 길벗교회 20개, 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개, 주님의교회 교구 및 장애인사역부 46개, 너나들이 26개, 섬김과나눔 특별지원대상자 59개 등 다양한 기관과 대상자들에게 사랑의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이웃돕기 공모사업

지역 사회복지기관(가락종합사회복지관,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사)위례 송파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 서울시농아인협회 송파지회, 서울시송파구재가노인복지기관, 솔바람복지센터, 송파구방이복지관, 송파노인종합복지관, 송파인성장애인복지관, 송파종합사회복지관, 잠실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이웃돕기 공모사업을 실시하여, 총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내용은 생활지원, 주거환경 개선, 긴급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등으로, 송파구 내 주요 복지기관들과 함께 지역사회의 필요에 응답하는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정혁 사무국장 / (사)섬김과나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만남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 6교구를 섬기게 된 김은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6교구 사역을 맡겨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거룩한 사명의 무게를 마음에 새기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여 겸손하고 담대하게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힘쓰며,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목회를 이루고자 합니다. 또한 진실한 교제를 통해 믿음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성실히 섬기겠습니다.

앞으로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누게 될 은혜의 여정을 기대하며, 기쁨 때나 슬픔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빛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복됨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은선 목사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임하게 된 김주환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겸손(빌 2:6-7)을 기억하며 낮은 곳으로 임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진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성실한 종의 자세로 기쁨과 눈물의 자리에 늘 함께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지길 기도합니다. 함께 걸어갈 믿음의 여정을 기대하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김주환 목사



안녕하세요~! 새해 주님의교회 장애인사역부 전임교역자로 부임한 김보람 목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주님의교회에서 좋으신 성도님들과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어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교회학교에서 다음세대와 가정을 섬기며 하나님 주신 사랑을 나누었는데, 이렇게 주님의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장애인 성도들과 함즐함울하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사역부 공동체에 부어주실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사역부와 예배다, 싹담나무 지체들에게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보람 목사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 '주님의교회'라는 귀한 공동체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EM 성인예배부를 섬기게 된 윤현섭입니다.

저는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낮은 마음으로 성실히 감당하며, 성도님들과 한마음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특히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모든 세대와 따뜻하게 소통하며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전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섭 전도사



홍보출판부
2026 함즐함울

함께 기록하고 함께 나누는 2026 상반기 함즐함울

주님의교회 교회신문 「함즐함울」은 이름 그대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은혜의 흔적을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2026년 상반기에도 함즐함울은 예배와 절기, 각 부서의 사역과 훈련, 그리고 그 현장에서 흘린 눈물과 고백, 감사의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6년 상반기 발행 일정과 내용

1월부터 7월 초까지, 함즐함울은 신년 예배와 특별새벽기도회 내용으로 문을 열고, 유소년부와 청소년부 겨울수련회와 제직수련회,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절과 부서별 사역, 무지개잔치, 청년 사역, 통일선교, 창립기념일까지 각 호마다 부서별 사역 소개와 후기, 절기와 예배에 담긴 신앙적 의미, 현장에서 섬긴 성도들의 고백과 간증, 사역 이후의 은혜,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한 배움, 소그룹 모임에서의 나눔 등을 중심으로, '행사 안내'가 아닌 신앙의 이야기로 기록하려 합니다.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신문

함즐함울은 완성된 이야기를 찾지 않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사역, 서툰

고백, 작아 보이는 순종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기록으로 담고자 합니다. 함즐함울은 소수의 사람이 만드는 신문이 아니라, 교역자와 성도, 다음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기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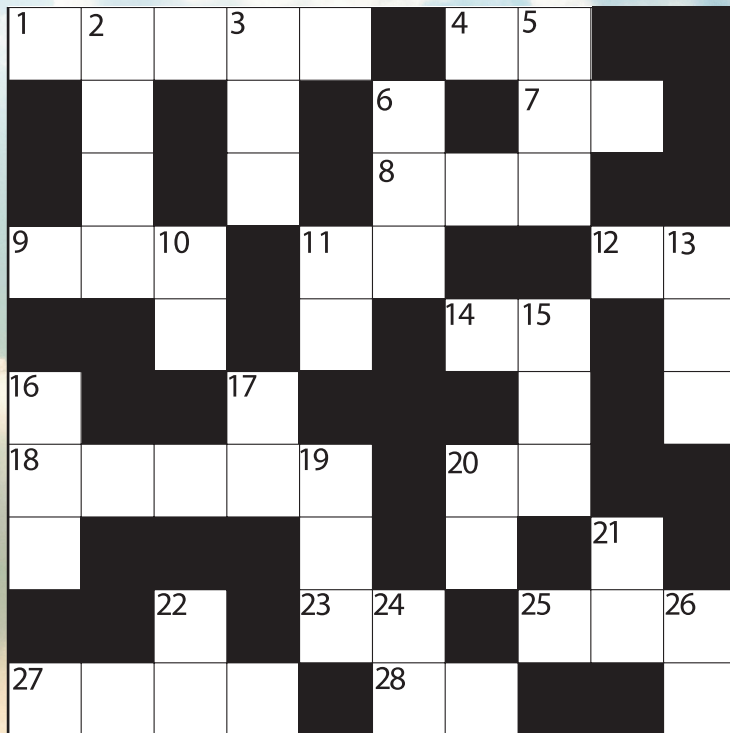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그날의 예배가 제 신앙을 다시 세웠습니다.” “눈물로 섬겼지만,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나하나가 함즐함울의 가장 소중한 기사입니다.

2026년 상반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록하는 함즐함울에 교역자와 모든 성도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 주님의교회가 걸어온 길이 됩니다.

함즐함울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골로새서 편

이번 호는 신약의 열두 번째 권인 <골로새서> 편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소아시아에 있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로, 서기 62년을 전후하여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빌립보서 편 정답



가로 힌트

1. 스키타이 지방 사람. 바울은 야만인의 의미로 이렇게 불렸다. (골 3:11)
4. 따뜻하고 부드러움. 성경에서는 겸손하다는 뜻이 더해진다. (골 3:12)
7. 물어보는 말에 대한 답. 또는 부르는 말에 대한 응답을 말한다. (골 4:6)
8. 노예가 아닌 사람. 누군가에게 속박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골 3:11)
9. 살게 하심.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의미한다. (골 3:1)
11. 바울의 동역자. 의사였으며, 공관복음 가운데 하나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골 4:14)
12. 바울의 동역자. 후에 바울을 떠나 데살로니가로 갔다. (골 4:14)
14.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흔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의미한다. (골 3:11)
18. 신약시대 소아시아에 있던 도시. 땅이 기름지며 교통의 요충지였다. (골 2:1)
20. 도를 전하는 것. 성경에서는 복음을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한다. (골 4:3)
23. 보배롭고 가치가 높은 물건. 보물을 뜻하는 다른 말이다. (골 2:3)
25. 바울의 동역자. 3차 전도 여행에 동행했다. (골 4:7)
27. 세상에 대한 초보적인 학문. 바울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바탕을 둔 성숙한 종교적 지식에 대응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골 2:8)
28. 평화로움. 하나님은 무엇보다 평화와 이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골 1:2)

세로 힌트

2. 구경할 만한 것. 무엇인가 흥미로워서 볼 만한 것을 말한다. (골 2:15)
3. 어떤 사람도. 누구도. (골 2:4)
5.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 왕국의 후손들, 또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말한다. (골 3:11)
6. 고대 중동 지역에서 고문하거나 사형에 처하기 위해 만든 형틀. 나무로 십자 형태로 세워 죄수를 매달아 놓는다. (골 1:20)
10. 사람의 영혼이나 마음을 두루 부르는 말.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뜻한다. (골 2:5)
11.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 인칭대명사. (골 3:13)
13. 당연히. 어떤 일이나 행동이 상황이나 조건에 맞아서. (골 4:4)
15. 바울의 동역자. 골로새 교회에 안부를 전한 사람이다. (골 4:11)
16. 그리스 사람. 성경에서는 종종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하기도 했다. (골 3:11)
17. 단단히. 아주 진지하고 굳건히. (골 1:23)
19. 골로새 교회의 성도. 바울을 돕던 사역자로 추정된다. (골 4:17)
20. 널리 알림. 널리 전하여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 (골 1:23)
21. 매년 반복되는 기념일이나 제의 기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는 정기적인 날을 뜻한다. (골 2:16)
22. 인간과 세상의 근본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학문. 바울이 말한 이것은 당시 행해지던 이방의 종교 의식이나 사상을 뜻했다. (골 2:8)
24. 화목하며 평온함. (골 1:20)
26.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고통, 또는 쉽게 헤쳐나가기 어려운 상황. 하나님은 인간을 이것에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골 1:24)

CHRISTIAN PARENTS

2026.2.26-3.19
(매주 목, 오전10:30, Zoom)



기독학부모,
물고 답하다

하나님의 교육에 기뻐한 세상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기독학부모는 누구인가 궁금한 부모들 모여라!

기독학부모로 살면서 한 번쯤 궁금한 질문 앞에서
선배 기독학부모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의 나의 답을 쓰고
함께 나누며 기독학부모로서의 길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런 질문을 나눠요

청지기인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요?
자녀를 잘 키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기독학부모가 꼭 성장해야 하나요?
기독학부모란 어떤 부모인가요?

내가 자란 교육환경이 나의 교육관에 영향을 줄까요?
기독학부모가 교육을 보는 시선은 무엇이 다른가요?
사교육을 꼭 시켜야 할까요?
나의 자녀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리 가정만의 기독교적 훈육원칙이 있나요?
우리 아이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사춘기 아이와 친밀감을 쌓는 방법이 있나요?

학교 교육(활동)에 꼭 참여해야 하나요?
내 아이를 넘어 우리 아이를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기독학부모에게 공동체가 필요한가요?
기독학부모로 살면서 나를 붙들어준 사람들이 있나요?



2026.2.26-3.19
(매주 목, 오전10:30, Zoom)

무료 (등록시, 나눔 자료 별도 제공)



등록은 여기서!



2026년 중등부 겨울캠프
하나님의 러브레터

2026년 1월 31일(토)-2월 1일(주일) 김필레관 5층 다목적관

비전트리 고등부 겨울수련회

A Love Letter
From God

: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가장 따뜻한 편지



주님의교회 김필레관 5층 다목적관
2026.02.07(토)-08(주일)

2026
항존직 선거 시행공고

- 항존직 선거 일정
 - 항존직 등 중직 직분자의 추천 투표: 2026. 3.8 (주일) 예정
 - 당회의 공천 투표: 2026. 4.12 (주일) 예정
 - 공동의회 선거: 1차선거 2026. 5.10 (주일), 2차선거 2026. 5.17 (주일) 예정
- 항존직 선출인원: 장로 10명, 안수집사 20명, 권사 20명
- 항존직으로 피택받을 수 있는 성도의 자격

구분	세례, 입교 (선거일 기준)	등록 (선거일 기준)	연령 (선거년도말 기준)	자질 및 성품	세움학당 이수여부 (영자/영문/교과/기타)
장로	7년	10년	만40세 - 65세 미만 1962.1.1 - 1966.12.31 출생자	상당한 식견과 통솔 능력이 있는 자	○
안수집사	5년	5년	만30세 - 70세 미만 1952.1.1 - 1966.12.31 출생자	행위가 복음에 격합하고 교인의 모범이 되는 자	○
권사	5년	5년	만30세 - 70세 미만 1952.1.1 - 1966.12.31 출생자	교우들의 신앙을 받고 간절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 있는 자	○

✓ 후보자의 추천 및 공천

- 추천투표에 참여하는 중직 직분자:
 - 항존직(은퇴장로, 사임장로, 시무, 은퇴 안수집사, 시무, 은퇴권사, 협동장로)
 - 거자씨 인도자
 - 제직부서 부서장
- 공천투표: 당회원

✓ 공동의회 선거

- 선거 참여 자격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등록 1년 이상 된 자로서 현재 주님의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
 - 선거시행공고일 기준 18세 이상의 세례, 입교 교인
- 피택(선출) 기준
 - 장로: 총 유효 투표자의 2/3 이상 득표자
 - 안수집사, 권사: 총 유효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

2026년 1월 11일
주님의교회 선거관리위원회

교회일정

- 1/18, 25 (주일) 2026 신임서리집사교육
- 1/28 (수) 2025년 4/4분기 제직회
- 2/1 (주일) 제직수련회
- 2/4 (수) 공동의회

알립니다

1. 2026 신임 서리집사 대상 교육
대상: 만30세 이상, 교회 등록 후 1년 이상 된 세례(입교) 교인
교육: 1/18, 25(2회), 오후 2:30~3:30
(2회 모두 참석하셔야 합니다.)
장소: 1층 소예배실
2. 유소년부 어린이영어예배 Winter VBS
주제: Friend Builder(롬 14:17~18)
일자: 1/24(토)
장소: The Greatest Love 전시장 및 Future ground
문의: 정지인 목사(010.7280.2488)
3.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일자: 1/13(화) 부터
방법: ① 홈페이지 직접 발급 ② 홈페이지 발급 신청
③ 사무실 직접 방문 접수(전화신청 불가)
문의: 임미숙 간사(02.416.5181)

모집합니다

1. 주차안내부원(6명)
1부(06:30~08:30): 1명
2부(08:30~10:30): 2명
3부(10:30~12:30): 3명
문의: 오상훈 안수집사(010.9075.4305)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임익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 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